

## 군수 선거에 야당 대표들까지...영광·곡성이 뜨겁다



“이런 물난리 처음이야”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일대에 시간당 101mm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21일 소방대원들이 주택 침수로 고립된 주민을 긴급 구조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제공>

### 폭염 끝나니 400mm 폭우

광주·전남 1명 사망 주택 등 침수 아침 기온 '뚝'...어느덧 가을

유례없는 가을폭염에 이어 누적강수량 400mm에 달하는 역대급 가을비가 사흘간 쏟아지면서 광주·전남에서 1명이 숨지고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9일부터 21일 까지 누적 강수량은 여수산단 400.5mm, 장흥 유치 384.0mm, 순천 376.3mm, 강진 성전 362.5mm, 보성 334.5mm, 화순 247.5mm, 광양시 242.3mm, 광주 147.3mm, 목포 108.5mm 등이다.

지난 19일 예보됐던 사흘간 강수량 30~80mm, 시간당 최대 30~50mm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특히 진도군은 시간당 최대 112.2mm의 비가 쏟아졌으며 해남 산이 101.0mm, 강진군 96.5mm, 장흥 관산 90.0mm, 목포 35.3mm, 광주 23.4mm 등 지역에서 짧은 시간에 강한비가 쏟아지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

장흥에서는 폭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린 80대 남성이 실종됐다가 18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사흘간 광주·전남 소방본부에는 광주 7건, 전남 1096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목포와 순천·고흥에서 주택 3채가 반파 피해를 입었다. 진도와 해남 등 9개 지역 주택 364채가 침수됐다.

화순군 이암면 구례리에서는 전날 오후 4시께 인근 제방이 무너져 흘러내린 토사로 인해 인근 캠핑장에 있던 야영객 60여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수확을 앞두고 벼 농가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보성에서는 716ha의 면적의 벼가 쓰러졌고, 해남 95

ha, 영암 80ha, 나주 78.3ha, 순천 30ha 등 전남에서만 총 1030ha의 논이 물에 잠겼다.

예상을 뛰어넘는 물폭탄을 몰고 온 이번 비는 역대 9월 강수량 기록도 모두 같이 치렀다.

순천에는 지난 20일 하루동안 200.8mm의 비가 내려 2014년 9월 24일(179.5mm) 이후 10여년 만에 9월 중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강진군과 광양시에서도 21일 각각 247.4mm, 182.6mm의 비가 내려 9월 일강수량 극값 1위를 경신했다.

이 밖에도 지난 21일 강진(96.5mm), 장흥(80.9mm), 보성(79.3mm), 완도(64.8mm)에서 시간당 최대 강수량 9월 극값을 경신했다.

기상청은 예측보다 많은 비가 내린 이유로 제14호 태풍 '플라산'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가 갑자기 한반도로 경로를 틀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열대저압부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강하게 충돌하면서 강한 비구름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번 폭우로 한반도를 덮고 있던 고기압이 물러나면서 9월 중순까지 이어진 '가을 폭염'도 기세를 꺾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올 여름 1차레만 영향을 미쳤던 태풍이 9~10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주말 내내 내린 비로 23일과 24일은 아침 기온이 2~5도가량 떨어지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내외의 쌀쌀한 가을 아침 날씨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23일 26~29도, 24일 26~29도로 비가 오기 전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으나 여전히 평년보다는 2~3도가량 높겠다. 다만 열대야가 해소되면서 낮 밤 기온차는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영광에서 현장최고위...선거캠프 '인해전술' 조국 혁신당 대표 '영광·곡성 한 달 살기'...12명 국회의원 전원 출동 '지방선거 예비고사'...텃밭 강하나 호남 교두보 확보나 양 당 총력전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재선거에서 밀리면 '호남 텃밭' 사수를 장담할 수 없게 되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조국혁신당도 '호남 교두보'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당의 청사진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 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경쟁을 펼치면서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이었던 '호남 선거판'도 커지고 있다.

22일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연임 이후 첫 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영광에서 열기로 하는 등 힘을 쏟고 있고 조국혁신당도 12명 국회의원이 두 지역을 잇따라 찾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3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임 성공 후 처음으로 지역에서 진행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영광에서 연다. 그만큼 민주당이 영광군수 재선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민주당은 최근 영광 출신이나 영광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 보좌·비서관과 중앙당 인사들을 영광군수 선거캠프에 추가

보장했다. 민주당이 영광 선거캠프의 몸집을 키우는 '인해전술'에도 나선 것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영광·곡성에 월세방을 구해 한달살이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재·보궐선거 황명선 지원단장은 "조 대표가 영광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한준호·정정래·박지원 의원이 한 달 살기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광주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참석해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도 연다. 민주당이 전남에 이어 광주를 찾는 것은 '광주발 바람몰이'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약해지거나 조국혁신당으로 넘어간다면 민주당은 2년 후 지방선거에서도 치열한 '본선 경쟁'을 치러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호남의 압도적 지지가 있어야만 지방선거 압승과 대선 승리까지 이룰 수 있다는 판단으로 광주·전남에 총력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도 일찍이 영광·곡성을 전략 선거구로 지

정하고 호남 표심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국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국회의원 12명은 지난 21일 장현 영광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전원 참석했다. 이들은 장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개소식 이후에도 영광 곳곳을 돌며 주민들을 만났다.

조 대표는 개소식에서 "(조국혁신당 소속) 12명 국회의원은 모두 영광군수가 됐다는 마음으로 영광 발전을 위해 땀 흘릴 것"이라며 "장현 후보가 군수가 된다면 장 후보 한 명만 얻는 것이 아니다. 12명의 명에 영광 군수를 얻는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혁신당은 지방선거 '예비고사' 성격이 짙은 이번 호남 재선거에서 승리하거나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2026 지방선거에서도 '호남 후보'를 낼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혁신당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선전한다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지지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총력전을 펼치는 이유가 힘이 실린다.

혁신당은 22대 총선 때 비례대표 선거 광주·전남 지역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을 꺾고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영광·곡성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당시 광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연합이 36.26%, 조국혁신당이 47.72%를 얻었으며 전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9.88%, 조국혁신당이 43.97%를 기록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G-페스타

## 광주 2024

FALL IN GWANGJU

**시즌 1. JOYFUL 광주**  
9.25.~10.13.

- 제15회 광주비엔날레  
9.7(토)~12.1(일) /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외 광주 일원
- 비에페스트 광주  
9.25(수)~9.29(일) / 김대중컨벤션센터
- 빛고를 댄서스 이스포츠 대회  
9.25(수) / 광주e스포츠경기장
- 광주 에이시메어  
9.26(목)~9.29(일) / 김대중컨벤션센터
-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  
9.27(금) /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무대
- 제5회 아시아문학페스티벌 등  
9.27(금)~10.13(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광주프린지페스티벌  
9.28(토)~9.29(일) / 광주광역시청 야외음악당
- 햇츠 홀로피 2.0  
9.28(토)~9.29(일) /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  
10.1(화)~10.6(일) / 5·18민주광장, 광주 동구 일원
- 제21회 광주 추억의 송강축제  
10.2(수)~10.6(일) / 금남로, 충장로 등
- 광산 세계아시아상  
10.12(토) / 월곡 목련로, 고려인마을 특화거리 일대

**시즌 2. TASTY 광주**  
10.17.~10.26.

- 제9회 광주서창역새축제  
10.17(목)~10.20(일) / 영산강변(극락교~서창교, 3.5km) 일원
- 광주식물대전  
10.17(목)~10.20(일) / 김대중컨벤션센터
- 제31회 광주김치축제  
10.18(금)~10.20(일) / 광주광역시청 광장 일원
- 광주류큐관광페스타  
10.18(금)~10.20(일) / 김대중컨벤션센터
- 광주송강 남도 핫 페스티벌  
10.19(토) / 광주송강역세권 일대
- 동명커피산책  
10.26(토) / 동명동 카페거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동구

광주광역시서구

광산군

A.S.O.O

조선대학교

광주비엔날레

GTO 광주관광공사

광주문화재단

gicon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광역시 동구문화관광재단

DOT PLANNE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민간임대아파트 보증 사고 광주·전남 많다 ▶6면
- KIA 네일, KS 출전 보인다 ▶18면
- 호남의 누정 원림 - 전남 나주 영모정 ▶22면